



경고의 뉴스레터 "나팔"

발행일 : 2014년 2월 발행 (제 46호)

발행 : 경고의나팔 출판

가격 : 무료배부

나팔 HP: <http://www.geocities.co.jp/Technopolis-Mars/5614/>

목차:

◎권두 메시지 '공상이야기' 예레미야

◎증 '부족한 무게를 채우다' E3

◎알림 코너 '신간서적 소개'

<권두 메시지>

공상이야기 by 예레미야

오늘은 공상이야기라는 타이틀로 디모데전서부터 보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4:7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종말의 교회는 공상이야기가 일어난다>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 교회 안에 공상이야기가 일어나는 것, 그런 공상이야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그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교회에 들어오는 공상이야기에 대한 경고를 보고 갑시다.

위 내용은 교회에 들어오는 공상이야기와 함께 "노년의 여성(KJV에서는 노년의 아내)"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비유가 가득한 책이며, 주님은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를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까"라고 질책했다. (마가복음 4:13)그래서, 비유를 이해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노년의 여성(아내)의 비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결혼에 대해 이 비밀은 위대하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연결하면 써진 대로, 아내는 교회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아내는 초대 교회가 아닌 교회 시대의 끝, 종말의 교회를 가리키는 비유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처음에는 부끄럼 많은 아내도 나이가 들면 배짱 세계 되어, 더 이상 남편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불행히도, 종말의 날의 교회도 더 이상 남편 인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른다기 보다, 마음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녹아든 저속한 것이 되어, 마침내 성경과 그리스도의 말씀과는 무관한 공상이야기를 말하게 되는 곳, 그러한 비유로써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은 어떨까요? 불행히도 이것은 사실이며, 현재의 교회는 이제 남편이어서 '말씀은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해 순순히 따르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제멋대로인 망상이야기, 공상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주교는 성경의 말씀이 마치 신화인 것처럼 "진화론은 과학적이며 부정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옥은 없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천주교의 말은 진리와는 동떨어진 공상이야기입니다. 바야흐로 노년의 아내는 저속한 공상이야기에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 아래의 말씀에서 종말의 날에는 악령의 교리가 교회를 석권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악령의 교리는 구체적으로는 공상이야기를 통해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압시다.

디모데전서 4:1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환난 전에 교회가 구원받는다는 공상이야기>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 공상이야기가 진실된 이야기로 생각해버리는 천주교는, 정말로 공상이야기나 악령의 교리가 석권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주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똑같이 개신교 안에서도 공상이야기라든지 악령의 교리에 장악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많은 공상이야기 중에서도, 개신교에 만연한 교리, 환난 전에 교회가 구원된다고 하는 이른바 환난 전 휴거설 (2단계휴거설이라고도 함)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교리는 교회 시대의 끝 무렵인 19세기에 교회에 몰래 들여와진 가르침이며, 그때까지 교회에서 제기되었던 적 없는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공상이야기입니다.

역대 성도들, 루터도 존 웨슬리도 이러한 가르침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9세기에 영국, 플리머스 브레드린의 J.N.다비가 미국에서 강연해서 퍼진 가르침입니다.

그는 영매인 마가렛 맥도날드가 보았다는 '환난 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성도를 하늘로 구원한다'라는 환상에 따라 이 이야기를 퍼트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매가 본 환상이 이 교리의 기본이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상이야기는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된다>

성경의 가르침에서 나온 가르침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환난 전에 구원된다 라는 등 그리스도가 2회에 걸쳐서 재림한다는 가르침은 많은 성경 말씀과 모순되고 충돌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여러 번 반복하며, 종말의 날에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에 발생하는', '환난을 경과하는' 것을 말하며, 환난 전에 구원된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일어나지 않는 환난을 말한 거짓말쟁이인가?)

마태이 24:3 예수께서 감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중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24: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영화 레프트 비하인드는 종말의 공상이야기이다

24:5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24:6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24:7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24:8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24:9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종말에 관한 기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때,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히며 죽일 것이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는 모든 국가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라며 우리가 그 날 환란을 만나고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과 같은 고난을 만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란 전 휴거설이 올바른 것이라면, 그리스도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고난에 대해 말한 양치기 소년 또는 거짓말쟁가 되어버리는 거입니다. 그러나 그럴 리가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 예수?)

마태복음 24:10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24:11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24:12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주님은 위의 구절에서 그날 사람들이 "큰 무리를 넘어 서로 배반하고 미워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환란의 어려움 속에서 많은 기독교인이 신앙에 비틀거리고 또한 체포와 투옥의 공포 속에서 서로 배신하거나 서로를 미워하는 날이 도래 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환란 전에 구원된다면, 그 어떤 경고도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예언한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것을 말했다)

주님은 환란 전에 구원받는 일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인간은 구원된다 말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24: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환란 전에 구원받는다 주장하는 것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환란을 끝까지 견디라는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결론적으로 이 환란 전에 구원받는다 교리는 전혀 성경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과 어긋나는 황당한 공상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이야말로 바로 디모데가 말하는 종말의 공상이야기이고, 또한 바로 종말의 악령의 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듣기 좋은 공상이야기는 만연한다>

하지만 도대체 왜 이런 성경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하찮은 이야기, 공상이야기가 교회를 장악하게 된 것일까요? 이에 관하여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3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4:4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종말의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성경의 올바르고 건강한 교리나 가르침을 듣기에는 견딜 수 없게 되어, 그 결과 그러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듣기에 좋은 공상이야기들은 현혹되기 쉬운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 눈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결코 환난을 만나지 않는다는 듣기 좋은 공상이야기, 환란 전 휴거설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 각 교회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귀에 좋은 종말 교리는 만연하다>

위 말씀, "자신에게 편한 것을 듣기 위해 제멋대로인 소원을 가지고 차례로 교사들을 자신들을 위해 모아"라는 말처럼 종말의 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교리, 그러한 말을 하는 교사는 많은 기독교인에게서 환영 받고 퍼져갑니다. 반대로 듣기 싫은 소리는 퍼지지 않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결과 종말의 날에 인기를 얻는 종말 교리는 특징이 있으며, 그 특징은 '듣기에 좋다' 라는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수천 만부나 팔린 종말 책, 헐 린지의 책과 레프트 비하인드 등은 바로 그 '기독교인들이 듣기 좋은 것'이라는 특징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란 전 휴거설 → 기독교인은 환난을 만나지 않는다는 듣기 좋은 가르침

* 환란에 재앙을 만나는 것은 유대인, 기독교인은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는 듣기 좋은 가르침

* 성경에서 명백하게 경고하고 있는 종말의 날의 교회의 배교와 그 날 많은 기독교인이 당하고 더욱 나뉘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된다는 등, 듣기 싫은 진리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이 책은 듣기 싫은 성경의 진리에서 우리를 멀리하고, 있지도 않은 공상이야기처럼, 판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러한 사기와도 같은 책은 베스트 셀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위 성경 구절, "자신에게 편한 것을 듣기 위해 제멋대로인 소원을 가지고 차례로 교사들을 자신들을 위해 모아"라는 말은 이 책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종말의 예언은 공상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사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든 되지 않든, 종말의 날의 사건은 이러한 공상이야기와 배교 그리스도인의 망상에 따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것은 진리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것을 알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것은 그 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귀 아픈 진리에서 벗어나고, 반대로 공상이야기는 매우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옛날 주 예수 때에도 그랬습니다. 가혹한 진리의 말씀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러나 듣기 좋은 이야기와 공상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교사인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진리를 말하기보다는,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42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여기에서 쓰여진 '공의'는 KJV에서는 심판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즉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민중의 희망과 요구에 맞추어 듣기 좋은 소리를 이야기하고 다가올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중 또한 듣기 좋은 말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음의 여호와의 말씀과 같은 가혹한 미래의 심판을 말하는 진리의 말씀은 환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19:41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19:42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19:43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19:44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 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견디지 못하고 주님을 이단자로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미래는 어떻게 실현한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40년이 지난 기원 후 70년, 이 여호와의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져 예루살렘이 로마 군에 공격받아, 주위 그 중 사람들은 마지막 한 명까지도 살해당해 버립니다. 민중의 환심을 위한 공의(심판)에 대해 말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말만 늘어났던 바리새인들의 목소리, 그리고 공상이야기는 실제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어렵지만 그러나 진리를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만이 미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에서도 동일한 이야기인지 알아보시다. 그 날 환난 전 휴거설 등의 듣기 좋은 공상이야기가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미리 명확하게 환난 전에 구원된다는 가르침을 거절하고 부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7:15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즉 주님은 그들을 주님의 제자를 '이 세상에서 떠난다'는 환난 전 휴거설 대신 환난을 보내지만 그러나 '나쁜 자들로부터 지켜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도 주장도 하지 않은 거짓을 언급해서는 안됩니다.

-이상-

공상이야기를 써넣은 헐 린지의 책

이전부터 주님께서 계시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수준에서의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일전에 정확히 작년 2013년 12월 1일 오전 예배 설교에서 그렇게 말한 것을 주님께서 저의 뒤를 밀어주신 것인가? 라고 생각해서,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 제가 왜 주님에게서 계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까에 대해서입니다만, 그것은 성경의 설명을 통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지만, 성경에서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아시는지요? 덧붙여서 구약성서의 곳곳에는 '성전'의 사양에 대해 쓰여져 있습니다. 이미 성서에 정통한 여러분이라면 아시라고 믿습니다만, 기둥이나 방의 크기 등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아니지만 '방주'에 있어서도 똑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하나님은 재료를 비롯해 방주의 높이와 폭, 길이 등을 노아에게 지시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창세기6:14-16

6:14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6:15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삼백 규빗, 광이 오십 규빗, 고가 삼십 규빗이며

6:16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6:17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위 구절 17절에 있는 바와 같이 분명히 노아와 그의

가족은 대홍수의 멸망을 면하기 위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주'로 노아의 가족은 대홍수의 재앙으로부터 지켜지고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아와 그의 가족이 살아난 것은 '방주' 안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특별히 작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설명 대로 '방주'를 건설하고 그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대홍수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신약시대의 끝을 사는 우리에게 교훈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대홍수에 의해 멸망한다"**고 전하였기 때문에, 노아의 일 때 일어난 대홍수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후서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에 타는데에 있어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고. 그 이전 구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은 어디에 있는가? 선조들이 잠든 때부터 아무 일도 창조의 시작부터 처음그대로가 아닌가."** 이렇게 우기는 그들은 다음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곧 하늘은 오래 전부터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에서 나와 물로 될 것이고, **당시 세계는 그 물은 홍수에 침몰해 망했어요'** 라고 쓰여 있습니다. '불'과 '물'은 영적인 것을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모두 '악한 영'을 뜻합니다. 그래요, 분명히 당시 '물'에 의해 노아와 그의 가족 이외의 사람들은 멸망했다만, 그러나 이것은 부차적인 의미도 포함해 '악령'의 홍수로 멸망 당한 것이라고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졌기 때문에'** 라고 쓰여진 것처럼 똑같은 종말이 재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 이라든지 '불'은 똑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멸망'**이라는 말이 양자 모두에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만, 종말, 이번엔 '불'에 의한 멸망이 올 경우입니다. 우리는 멸망에서 해방 되는 것과 같이, 그야말로 노아처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하늘과 땅'이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물론 눈에 보이는 천체가 멸망하는 것도 실현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성경 뒷면의 양상, 즉 비유적 의미인 '영적으로 멸망'이라는 것도 제대로 파악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멸망한다면, 아마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대홍수에서 준비를 한 노아의 가족은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계승하는 패턴입니다. 하지만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멸망해버렸습니다. 망한 것은 아마도 나라를 상속 하지 않은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테마로도 내걸고 있듯이, '무게를 충족한다' 즉 '주님의 말씀의 수준'의 성전, 즉 개별의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집" 더 알기 쉽게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이 거하시는 '성령의 궁' 을 지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제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노아가 만든 '방주'에 통하는 것입니다. 그때 맹목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주와 성전을 건축할 때 주님이 지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지시 받는 대로, 알기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대로 영적 토대를 구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 "손발이 너무 길어도, 너무 짧아도 안 된다"라고 쓰여져 있듯이 말씀 이상 말씀 이하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주님이 말한 곳에 머무르는 행보를 계속하는 가운데 각자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성전 이른바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처럼 '불의 심판' 즉 '멸망' 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때도 그랬던 것 처럼... 노아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지금 말하는 기독교인)은 있었지만 살아난 사람은 노아를 포함해 겨우 여덟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있어서도 실제 인원은 차치하고, '멸망'에서 탈출 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12월 1일에 "무게가 모자란다"는 것을 다니엘서 5장의 기술로 볼때 예레미야 목사가 메시지를 되고 있어지면 관계상 지금은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지만 요컨대 신이 말하고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은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고 계산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칭하더라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생명으로 인도 하는 문은 작고, 그 길은 좁고 찾는 사람은 드물다"는 말씀에도 통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수준"에 맞게 행보하고, 그때 그때에 있어서 하나님에게서 "좋아! 이거라면 괜찮아!" 라는 식으로 간주 받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 시대의 벨사살 왕 때 바벨론은 저울에 달아, 무게가 부족하다고 말해, 멸망해버린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중은 차치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무게(수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버렸을 때에, 멸망해 버린다는 개념은 잘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게의 부족'을 충족하는 행동에 대해 나름대로 표시된 것과 실천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은 항상 말씀대로, '기도'와 '성서 읽기' 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뜻을 행하는 것을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미흡하여 뜻이 있어도 적(사탄)에 당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방향에 따라 걸어가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가는 가운데, 약간의 우여곡절은 있다 해도, 어떻게든 하나님 덕분에 포인트의 행보에 조금씩이라도 들어가게 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봅니다.

또한 회개 할 점이나 부족한 점을 보여 주기 위한 기도를 날마다 바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신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이나 간과하고 있는 것이나 회개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엉뚱한 일로 도 표시됩니다. 다른 기독교인의 이야기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도 그런 실수는 별로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몰랐다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아주 친절하게 또한 정중하게 보여 주십니다. 또한 그것에 대하여 기도해 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계시 주신 때는 '아, 이런 일도 나는 아직이구나, 아무것도 모르는구나'라고 충격을 받거나 창피해하기도 합니다만, 성령 안에서 그때마다 제대로 회개할 때 모두 유익한 것을 가져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망해버리는 일이 없도록'이라는 하나님의 배려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보여 주시는 일도 너무나 소중한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직도 부족투성이 일지도 모릅니다. 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알아야 할 것도 알지 못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걸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어떻게든 계시를 받으면 즉시 회개하고 '부족'을 충족하는 그런 것을 반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조금씩이라도 주님의 눈에 맞는 '성전'으로 탈바꿈하는 연장선 상에서 '불'에 의한 멸망에서 어떻게든 벗어나 천국에 초대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간증을 드렸습니다.

만약 뜻을 느꼈다면, 꼭 실천 해보세요.

항상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영예가 있기를 바랍니다.